

전주시, 인문학도시 기반 구축한다

‘인문학 진흥 조례’ 제정·공포 통해 인문학 진흥 기반 조성 등 명시

전주시가 인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행복한 전주만의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인문학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문학을 생활 속에서 보다 손쉽게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가 최근 제정·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인문학진흥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인문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시는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를 근간으로 최근 선포된 전주정신 ‘꽃심’ 등 전주의 인문학적 자산을 활용한 전주만의 인문학을 발굴하고,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는 인성중심의 전주 인문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공포된 조례에 따라 △인문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을 기본으로 5년 마다 전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인문학 활동 장려, 매년 5월 셋째 주 전주시



그늘 밑 휴식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20일 전주시내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민이 벤치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인문주간 지정·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4년 9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7년 8월까지 3년간 ‘인문도시 온다’라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문학으로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주인문학 365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관 인문학 합동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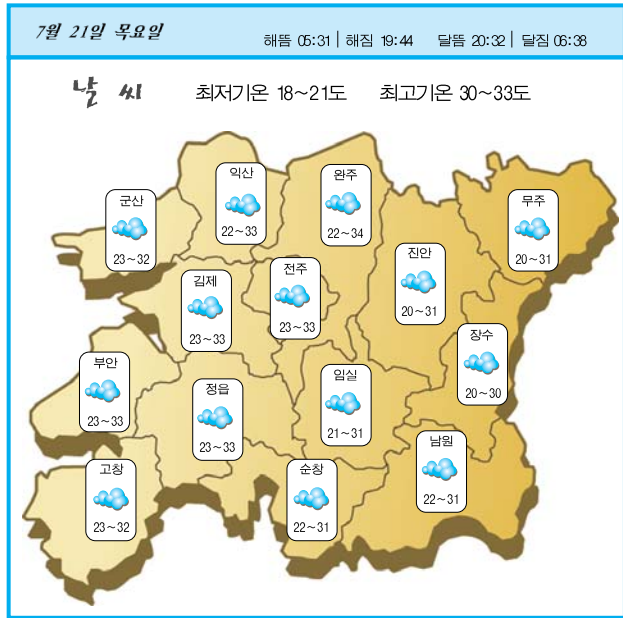
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공동 홍보 및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11월부터 전주시홈페이지 ‘전주인문학 365’를 통한 인문학통합홍보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제1회 전주시 인문주간 선포식’을 갖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자체 인문주간을 선포 시민들이 행복한 전주만의 인문학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전주인문학365’ 로고와 특허청의 업무표장에 등록·출원돼 전주시 인문교육지원사업과 인문학 진흥정책 등에 활용되고 있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법무과장은 “이번 인문학 진흥 조례 제정으로 365일 삶의 향기 넘치는 인문도시 전주, ‘책 읽고 학습하는 전주’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최유진씨,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전북대 대학원생이 촉망받는 과학자로 선정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유진(사진) 대학원생(고분자·나노공학과 박사과정)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세계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에 선정됐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국내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및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높여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최 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과학자라는 정부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등록금과 생활비 및 학술활동비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2년 동안 지원받게 되고, 2년 후 우수 연구 성과를 인정받으면 추가 지원도 받는다.

사업 선정을 통해 최 씨는 ‘호스트-게스트 분자 자기조립을 이용한 코팅식 단층형 역과장분산 보상필름’이라는 주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이 연구는 신규 소재를 기반으로 한 코팅식 광학필름을 호스트-게스트 분자 자기조립에 의한 코팅식 단층형 역과장분산의 특성을 갖는 보상필름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노기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분야이다.

최 씨는 “이번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우수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 금암동-진북동 연결 ‘금암교’ 일부분 새롭게 탈바꿈

1차 공사 마무리로 부분 개통... 연내 2차 공사 완료 후 전면 개통

전주시 금암동과 진북동을 연결하는 금암교가 아름다운 교량으로 새롭게 태어나 부분 개통된다.

전주시는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금암교 교량 재가설 공사가 일부 완료됨에 따라 금암교를 부분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77년 가설된 금암교는 사실상

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인근 환경정비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교량 재가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재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기존 교량 철거로 인한 교통정체와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 재가설 공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계획했으며,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간 1차 공사

가 마무리됨에 따라 완공된 부분을 부분 개통기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 중 나머지 2차 구간 공사를 추진 연내 금암교를 전면 개통할 계획이다.

2차 공사가 완료되면 금암교는 총연장 27.5m에 폭 24.5m 규모의 조형미를 갖춘 아치형 교량으로 탈바꿈돼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건산천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부터 추진된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158억원을 투자해 하수도화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 생태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노송천 생태 복원 사업이 완공되면 도심 속 수변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재기자

전북우정청, 초등생대상 드론 체험교실 운영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20일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홍성기)를 찾아 6학년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의 기본구조와 간단한 조립과정 설명에 이어 다양한 드론 조종방법 체험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편지를 드론에 실어 날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수 청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창의와 인성은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다. 앞으로도 편지쓰기 운동 우수 참여학교에 창의와 인성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제8회 동향면 수박축제

2016. 8. 6(토) ~ 8. 7(일) 2일간

진안군 동향면 동향체련공원

시원한 여름 휴가

진안고원에서 느껴보세요